

대학생의 음주·흡연 예방교육 및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도 조사

방형애[†] · 임국환^{*}

대한보건협회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The Status of Health Education Program and the Needs of Restriction on Drinking and Smoking

Hyeong- Ae Bang[†] · Kook-Hwan Rhim^{*}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ive health education measures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and also investigated the demands of restriction o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in public area at the school level.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46 students of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analyzed with SPSS WIN 10.0 program.

Results: 1) Current drinkers were average 87.7% (male 90.1%, female 85.3%) and binge drinker was 68.4% (male 76.5%, female 60.2%). Among all drinkers, 19.4% drank more than eight times per month. As for the rate of smoking, 50.9% among the male student, and 12.1% among females were smokers. Among all smokers, the largest group (41.5%) smoked between 11~20 cigarettes per day. Many of the students started smoking in their middle schools (male 29.8%, female 51.5%). It implies that smoking prevention programs need to be emphasized in these schools.

2)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shows that no smoking students who drank were 66.2%, but abstainer who is smoker were only 5.7% ($p=0.004$).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and amount of smok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nonsmokers ($p=0.000$). The rate of attempts to reduce drinking was 38.1%, mainly for health reason. More than 34.5% of smoking student had made attempts to quit smoking, but succeeded only 16.9%.

접수일 : 2008년 5월 26일, 채택일 : 2008년 6월 20일

[†] 교신저자 : 방형애(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Tel: 02-921-9521, E-mail: ibang64@yahoo.co.kr

3) As for the needs of moderate drinking an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67.8% among female students and 53.6% among male demand special education programs. About effective health education measures on drinking and smoking, 49.3% of drinkers and 35.2% of smokers had an inclination for health educator, and the next were video, campaign and pamphlet.

4) The largest group (45.0%) of respondents had agreed to regulate on drinking behavior, and especially 74.5% of them wants to ban the practice in most public area in school. 35.7% among female students and 27.0% among male desired to extend the non-smoking area on whole campus. The health policy for college students,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education, counseling service, and special program on orientation, should be employed. For public health perspectives, university and college community had to institute the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 on drinking and smoking.

Key Words: Health education measures, Drinking and smoking rate, Regulation, Public area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술은 일반적인 음식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류와는 달리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주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처음 입학해 신입생 환영회, OT, MT, 동아리 모임 등 많은 술자리를 접하면서 점점 음주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음주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간다. 이들에게 술은 사교와 모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음주 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도 문제음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음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2001년 5월 서울과 수도권 소재 4개 대학 재학생 1천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월간 음주율은 92.2%로 미국 대학생의 86%(1996년)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94.4%, 여대생이 89.2%였다(천성수, 2002). 1회 음주량도 '7잔 이상'이

40.9%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남학생의 57%는 '7잔 이상'의 고도 폭음자였다. 또한 조사대상학생의 46%는 음주 전후의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월간 음주율이 54.8%(남 73.3%, 여 36.3%)이고 전인구의 7.8%(남 13.8, 여 1.9%)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도 위험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대학생의 월간 폭음률은 60.4%(남 70.3%, 여 49.7%)로 일반 근로자의 폭음률 54.6%(남 64.2%, 여 29.2%)와 비교해도 높았고 특히 여대생의 폭음률은 여성근로자의 1.7배정도 나타났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

대학생들의 과음과 폭음은 음주 후 성문제, 경제적 피해, 사고, 학업 지장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에도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사망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대학사회에서 형성된 잘못된 음주문화와 음주습관은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화를 지속화 시키고 각종 음주폐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흡연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성인여성의 흡연율 5.6%에 비해 여자 청소년(고2)의 흡연율은 13.4%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2005). 20대여성의 흡연률은 90년 1%에서 99년 4.8%, 2007년 5.7%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남성 흡연률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사업’ 연구(대한심장학회, 2008)에 따르면 4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중 93%는 남성에게서 발생하며 위험 요인은 흡연이 84.6%로 가족력 18.6%, 고지혈증 11.6%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이렇게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를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사회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가운데 59.0%는 음주에 대한 교칙이 없고, 교내 주류반입(56.7%) 및 음주가능성(54.8%)도 높은 실정이다(김광기, 2006). 또한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조차 문제인식 수준이 낮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감소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는 흡연은 건강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요인으로서 매년 4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이 수치가 천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대학생 음주 및 흡연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절주 및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학내 음주·흡연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 내에서의 절주 및 금연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들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모집단은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소재 5개 대학을 편의추출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5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임국환, 2004; 천성수, 2000)와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사전 훈련된 조사원 5명이 대상 학교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을 통해 총 35개 문항에 대해 학교별로 90건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음주 총 19문항(음주실태 2문항, 절주교육 8문항, 절주시도 5문항, 교내 음주 허용기준 4문항)과 흡연 16문항(흡연량 1문항, 금연교육 8문항, 금연구역설정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450명 중 무응답문항이 많은 4건을 제외하고 446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실태분석을 위한 주요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하였고 흡연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1. 음주 및 흡연실태

응답자의 성별 음주 및 흡연실태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월평균 음주율은 87.7%(남 90.1%, 여 85.3%)였다. 조사대상자들의 1회 평균음주량에서 남학생은 반 병~한 병 반 이내의 폭음자가 33.5%였고 ‘한 병 반 이상’의 고도 폭음자는 43.0%로 나타나 남학생의 76.5%가 적정음주량을 초과하여 폭음을 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폭음에 해당하는 ‘반 병~한 병 반 이내’ 음주자가 39.8%, ‘한 병 반 이상’

을 마시는 고도 폭음자가 20.4%를 차지했다. 즉,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68.4%는 폭음자이며 이 가운데 32.0%이상은 고도폭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음주횟수는 월 1~2회는 남학생 28.8%, 여학생 49.1%이고 주 1회 정도에 해당하는 월 3~4회의 음주비율은 남학생 22.5%, 여학생 18.3%였다. 주 2회 이상의 음주(월 8회 이상)횟수 비율은 남학생 27.1%, 여학생 11.7%로 나타났으며 전체 남학생의 15.8%, 여학생의 6.3%가 월 11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 50.9%, 여학생 12.1%로 나타났다. 흡연하는 학생들의 하

<표 1> 음주와 흡연량 및 횟수(소주기준)

단위 :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음주율 및 평균음주량	안 마심	22(9.9)	33(14.7)	55(12.3)
	마심	200(90.1)	191(85.3)	391(87.7)
	~반병 이내	47(23.5)	76(39.8)	123(31.5)
	반 병 이상~한 병 반 이내	67(33.5)	76(39.8)	143(36.5)
	한 병 반 이상	86(43.0)	39(20.4)	125(32.0)
	계	200(100.0)	191(100.0)	391(100.0)
월 평균 음주횟수	1~2회	64(28.8)	110(49.1)	174(39.0)
	3~4회	50(22.5)	41(18.3)	91(20.4)
	5~7회	39(17.6)	31(13.8)	70(15.7)
	8~10회	25(11.3)	12(5.4)	37(8.3)
	11회 이상	35(15.8)	14(6.3)	49(11.0)
	잘 모름	9(4.1)	16(7.1)	25(5.6)
	계	222(100.0)	224(100.0)	446(100.0)
흡연여부	안 피움	109(49.1)	197(87.9)	306(68.6)
	피움	113(50.9)	27(12.1)	140(31.4)
하루 평균 흡연량	반 갑 미만	31(27.4)	18(66.7)	49(35.0)
	반 갑~한 갑	56(49.6)	9(33.3)	65(46.4)
	한 갑~한 갑 반	13(11.5)	0(0.0)	13(9.3)
	한 갑 반 이상	13(11.5)	0(0.0)	13(9.3)
	계	113(100.0)	27(100.0)	140(100.0)
흡연시작시기	초등학교	11(9.1)	5(15.2)	16(10.4)
	중학교	36(29.8)	17(51.5)	53(34.4)
	고등학교	33(27.3)	10(30.3)	43(27.9)
	대학교	28(23.1)	1(3.0)	29(18.8)
	군 복무 중	13(10.7)	0(0.0)	13(8.4)
	계	121(100.0)	33(100.0)	154(100.0)

루 평균 흡연 량은 '반 갑~한 갑'이 41.5%(남 49.6%, 여 33.3%)였고 남학생 가운데 하루 '한 갑 이상' 을 피우는 학생도 23.0%로 조사되었다. 흡연시작 시기는 남학생은 중학교 29.8%, 고등학교 27.3%, 대학생 23.1%인데 비해 여학생들의 흡연시작은 중학교 때(51.5%)와 고등학교(30.3%)시절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15.2%로 남학생 9.1%에 비해 높았다.

2. 흡연여부와 음주의 관련성

흡연여부와 음주와의 관련성은 흡연자의 음주율이 94.3%로 비흡연자의 음주율(84.6%)보다 높았다. 음주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시는 비음주자의 흡연률 14.5%에 비해 음주자의 흡연률(33.8%)이 높았다. 음주자 중 비흡연자는 66.2%인데 비해 흡연자중 비음주자는 5.7%에 불과해 흡연자일수록 음주할 가능성(94.3%)이 높았다(p=0.004). 특히 흡연자일수록 적정음주량을 초

과하는(남자 5잔, 여자 4잔) 위험음주(여기서는 반병이상)를 하는 사람이 72.8%로 비흡연자의 위험음주율 54.3%보다 매우 높았고 흡연자중 10잔 이상을 먹는 사람이 41.4%(비흡연자는 21.9%)나 되었다.

또한 음주횟수도 흡연자일수록 주1~2회(월 4~8회) 정도의 건강음주를 넘어서 월 8회 이상 자주 마시는 경우가 33.5%(비흡연자의 12.8%)로 높았다. 즉 흡연을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 음주량수준의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3. 절주 및 금연교육 실태(교육경험 및 동기)

<표 3>에서 절주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대상 학생의 20.4%만이 절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절주교육 경험율은 15.2%로 남학생의 25.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절주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가 52.7%로 가

<표 2> 흡연여부와 음주의 관련성

구 분		흡연여부		계	X ² (p-value)
		비흡연	흡연		
음주여부	비음주	47(15.4)	8(5.7)	55(12.3)	8.625 (0.004)
	음주	259(84.6)	132(94.3)	391(87.7)	
	계	306(100.0)	140(100.0)	446(100.0)	
주량 (소주기준)	비음주	47(15.3)	8(5.7)	55(12.3)	23.146 (0.000)
	한 잔~반 병 이내	93(30.4)	30(21.4)	123(27.6)	
	반 병 이상~한 병 반 이내	99(32.4)	44(31.4)	143(32.1)	
	한 병 반 이상	67(21.9)	58(41.4)	125(28.0)	
	계	306(100.0)	140(100.0)	446(100.0)	
한달간 음주빈도	전혀 마시지 않음	23(7.5)	2(1.4)	25(5.6)	39.484 (0.000)
	1~2회	138(45.1)	36(25.7)	174(39.0)	
	3~4회	60(19.6)	31(22.1)	91(20.4)	
	5~7회	46(15.0)	24(17.1)	70(15.7)	
	8~10회	14(4.6)	23(16.4)	37(8.3)	
	11회 이상	25(8.2)	24(17.1)	49(11.0)	
	계	306(100.0)	140(100.0)	446(100.0)	

단위 : 명(%)

장 높았다. 남학생들은 절주교육을 받은 장소로 '기타'가 15.8%로 여학생의 5.9%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군복무 중이거나 예비군교육 등에서 절주교육을 접했을 가능성때문으로 여겨진다. '거리홍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절주 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8.8%와 6.6%로 매우 낮았다. 절주교육을 받게 된 동기는 '학교행사'가 49.5%였고 '가족권유' 20.9%로 나타났다. '매스컴의 영향'은 7.7%로 낮았다.

금연교육에 대한 경험은 남학생 60.4%, 여학생 49.1%로 절주교육 경험율(남 25.7%, 여 15.2%)에서와 같이 남학생의 교육 경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금연교육 경험율이 절주교육 경험율(20.4%)에 비해(54.7%)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금연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가 81.1%로 가장 높았고 '매스미디어' 5.7% '거리홍보' 4.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절주교육이 6.6%, 거리홍보 8.8%인 것에 비해 낮은 것이다. 즉 학생들은 금연에 대해서는 학교(81.1%)에서 가장 교육을 많

이 받았으나 학교외의 장소에서는 금연교육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집에서 절주교육을 받은 경우는 19.8%인데 비해 집에서 금연교육을 받은 경우는 2.5%로 매우 낮아 가정에서 흡연에 대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교육을 받은 동기는 '학교행사' 73.0%, '매스컴의 영향' 10.2%로 나타났다. 금연교육을 받게 된 동기에서 친구권유(4.5%)와 가족권유(3.3%)가 7.8%인데 비해 절주교육을 받게 된 동기는 친구권유(7.7%)와 가족권유(20.9%)가 28.6%였다. 즉 금연권유보다 절주권유가 주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효과적인 절주 및 금연교육 방법과 시기에 대한 요구도

<표 4>에서 효과적인 절주교육 방법으로는 '강사초청'이 49.3%로 가장 높았고 '절주비디오' 시청이 31.2%였다. E-mail을 통한 절주교육에

<표 3> 절주 및 금연교육 실태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절주	금연	절주	금연	절주	금연
절주 및 금연 교육 경험	있다	25.7	60.4	15.2	49.1	20.4	54.7
	없다	74.3	39.6	84.8	50.9	79.6	45.3
	계	100.0		100.0		100.0	
절주 및 금연교육을 받은 장소	학교	49.1	76.9	58.8	86.4	52.7	81.1
	거리홍보	8.8	4.5	8.8	3.6	8.8	4.1
	매스미디어	7.0	7.5	5.9	3.6	6.6	5.7
	집(가족 및 친지)	19.3	3.0	20.6	1.8	19.8	2.5
	기타	15.8	8.2	5.9	4.5	12.1	6.6
	계	100.0		100.0		100.0	
절주 및 금연교육을 받은 동기	친구의 권유	10.5	6.0	2.9	2.7	7.7	4.5
	학교 행사	49.1	65.7	50.0	81.8	49.5	73.0
	매스컴의 영향	8.8	11.9	5.9	8.2	7.7	10.2
	가족 권유	19.3	5.2	23.5	0.9	20.9	3.3
	기타	12.3	11.2	17.6	6.4	14.3	9.0
	계	100.0		100.0		100.0	

었다. 금연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에서 비디오, CD는 여학생이 36.2%로 남학생 26.1%보다 높았고, 캠페인에 대한 선호도는 남학생이 22.1%로 여학생 14.7%보다 높았다. 금연교육을 받은 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이 27.9%('매우 좋다' 10.2%, '좋다' 17.2%)인데 비해 효과가 '없다'가 18.4%, '전혀 없다'가 14.4%로 전체의 32.8%가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1%가 '매우 필요하다'(30.9%)와 '필요하다'(31.2%)로 응답했다. 남학생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56.3%인데 비해 여학생이 67.8%로 더 높았다. 교내에서 금연 교육을 시행할 경우 바람직한 주축자에 대한 설문은 민간단체 38.3%, 총학생회 25.6%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금연교육에 대한 주축자로 민간단체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강의하는 형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절주 및 금연시도 경험 및 성공여부

<표 5>에서 남학생의 38.3%, 여학생의 37.9%가 절주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고 절주시도시 남학생은 24.7%, 여학생은 25.9%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주시도 경험률이나 성공 및 실패율은 남·여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향후 절주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전체학생의 54.0%가 절주의향이 있었는데 남학생(47.7%)보다 여학생(60.3%)의 절주의향이 높았다. 절주를 시도한 이유는 전체학생의 52.4%가 '건강상의 이유'로 답했다. '의사의 권유'라고 응답한 학생(5.9%)까지 고려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절주를 시도한 학생이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주 시도시 실패원인은 전체학생의 27.6%가 '각종 행사의 참여로 인해'가 가장 많았고 '술 이외에 놀이 문화가 없다'가 22.0%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지속적인 권유'를 절주실패의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23.8%로 남학생 12.5%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금연시도 경험에 대해 전체학생의 34.5%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54.5%, 여학생 14.7%). 금연시도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56.5%로 가장 높았고 '친구 권유' 18.2%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가족 및 친지 권유'가 16.5%로 여학생의 6.1%로 높았고 여학생들은 '친구권유'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가 남학생 13.2%에 비해 훨씬 높은 36.4%를 나타냈다. 금연 시도시 남학생의 17.4%, 여학생의 15.2%만이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어 83.1%가 금연실패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시도시 실패원인으로 남학생들은 '정신적 스트레스'(37.0%), 여학생들은 '음주 중의 흡연 욕구'(39.3%)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향후 금연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남학생의 63.1%, 여학생의 71.9%가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6. 교내음주 및 흡연 허용기준과 장소규제에 대한 요구도

<표 6>에서 학교행사 외 교내 음주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전체학생의 70.2%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남학생은 79.7%가 학교행사와 상관없이 교내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행사 외 교내에서 음주시 한 달 평균 음주횟수는 전체학생의 74.8%가 '한 달에 1~2회'였고 '3~4회'가 10.5%였다. 전체 남학생의 13.0%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인 '한 달 평균 8~10회 이상' 학교 행사와 무관한 교내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달에 1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도 9.6%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바람직한 교내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항상 허용'이 42.4%(남 50.5%, 여 34.4%)였다. 그러나 '축제기간에 한해서만 허용'이 23.3%(남 18.0%, 여 28.6%)이고 '6시 이

<표 5> 절주 및 금연시도 경험 및 성공여부

		(단위 : %)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절주	금연	절주	금연	절주	금연
절주 및 금연 시도 경험	있다	38.3	54.5	37.9	14.7	38.1	34.5
	없다	61.7	41.0	62.1	74.6	61.9	57.8
	무응답		4.5		10.7		7.6
절주 및 금연 시도시 성공여부	성공	24.7	17.4	25.9	15.2	25.3	16.9
	실패	75.3	82.6	74.1	84.8	74.7	83.1
절주 및 금연 시도 이유	의사의 권유	7.1	0.8	4.7	9.1	5.9	2.6
	교육을 받은 후	8.2	-	5.9	-	7.0	-
	건강상의 이유	47.1	60.3	57.6	42.4	52.4	56.5
	홍보자료를 보고	8.2	-	3.5	-	5.9	-
	가족 및 친지 권유	-	16.5	-	6.1	-	14.3
	친구권유	-	13.2	-	36.4	-	18.2
	기타	29.4	9.1	28.2	6.1	28.8	8.4
절주 및 금연 시도 시 실패 원인	친구의 지속적인 권유	12.5	17.0	23.8	14.3	18.1	16.4
	술 이외에 놀이문화가 없다	23.4	-	20.6	-	22.0	-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8.8	37.0	14.3	10.7	16.5	23.9
	각종 행사의 참여로 인해	28.1	-	27.0	-	27.6	-
	금단증상	-	20.0	-	28.6	-	24.3
	음주 중 흡연욕구	-	18.0	-	39.3	-	28.7
	기타	17.2	8.0	14.3	7.1	15.8	7.6
향후절주 및 금연 의향	있다	47.7	63.1	60.3	71.9	54.0	67.5
	없다	52.3	34.2	39.7	19.2	46.0	26.7
	무응답	-	2.7	-	8.9	-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후 야간에만 허용'에 대한 의견도 21.7%(남 19.8%, 여 23.7%)로 대학 내 음주에 대해 제한적 기준을 두는 것에 45.0%가 찬성하였다. 음주를 '항상 불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6.5%나 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은 '항상 허용'에 대한 찬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부분 허용'(축제 기간에 한해 허용' 28.6%, '야간에만 허용' 23.7%)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교내에서 음주시 음주허용장소에 대한 의견은 '야외에서

만 허용'이 42.6%로 가장 높았고 '강의실외 허용'이 26.5%였다. 반면 '모든 장소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6.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내음주를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닌 학생이 42.4%였으나 '모든 장소에서 허용'은 16.8%로 낮고 오히려 음주 장소에 대한 제한적 허용에 대한 의견이 74.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교내 음주 및 흡연 허용기준과 장소규제에 대한 요구도

단위 :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교내 음주허용 기준	항상 허용	112(50.5)	77(34.4)	189(42.4)
	항상 불허용	17(7.7)	12(5.4)	29(6.5)
	축제기간에 한해 허용	40(18.0)	64(28.6)	104(23.3)
	야간에만 허용(오후 6시 이후)	44(19.8)	53(23.7)	97(21.7)
	기타	7(3.2)	10(4.5)	17(3.8)
	무응답	2(0.9)	8(3.6)	10(2.2)
	계	222(100.0)	224(100.0)	446(100.0)
교내 음주허용 희망 장소	모든 장소 허용	52(23.4)	23(10.3)	75(16.8)
	강의실 외 허용	61(27.5)	57(25.4)	118(26.5)
	휴게실 내에서만 허용	12(5.4)	12(5.4)	24(5.4)
	야외에서만 허용	83(37.4)	107(24.0)	190(42.6)
	기타	8(30.6)	12(5.4)	20(4.5)
	무응답	6(2.7)	13(5.8)	19(4.3)
	계	222(100.0)	224(100.0)	446(100.0)
교내 금연 희망 장소	교내전체	60(27.0)	80(35.7)	140(31.4)
	흡연구역 외	62(27.9)	91(40.6)	153(34.3)
	건물 내	49(22.1)	33(14.7)	82(18.4)
	강의실 내	30(13.5)	6(2.7)	36(8.1)
	기타	15(6.8)	4(1.8)	19(4.3)
	무응답	6(2.7)	10(4.5)	16(3.6)
	계	222(100.0)	224(100.0)	446(100.0)

교내 금연구역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흡연구역 외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데 34.3%가 찬성하였고 ‘교내전체’ 31.4%, ‘건물 내’ 18.4%, ‘강의실 내’ 8.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교내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35.7%가 찬성해 남학생 27.0%보다 높았고 흡연구역 외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도 여학생 40.6%, 남학생 27.9%로 여학생이 더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고찰

조사대상 학생들의 음주율은 평균 87.7%로 (남 90.1%, 여 85.3%) 이는 천성수(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 월간 음주율 92.2%(남 94.4%, 여 89.2%), 조성기 외(2001)의 음주율 96.7%에 비하면 낮은 편이나, 적정음주량을 초과한 폭음자(반 병~한 병 반)는 (남 33.5%, 여 39.8%) 및 고도 폭음자(한 병 반 이상)의 비율은(남 43.0%, 여 20.4%) 천성수(2002)의 연구에서 폭음자 비율이 남학생 70.0%, 여학생 39.0%로 조사된 것과 비교시 여학생의 폭음률이 6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고도 위험 음주율(1회 평

균 남자 소주 1병 이상, 여자 소주 5잔 이상)이 26.1%라는 것과 비교 시 대학생들의 폭음률이 일반 성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음주횟수도 주 2회 이상의 음주비율이 38.8%이며, 전체 남학생의 15.8%, 여학생의 6.3%가 월 11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행된 연구자료인 이원재(2001) 주 2회 이상 음주율 33.3%보다 높고 임국환 등(2004)에서 월 9회 이상의 음주 빈도율이 남학생 39.6%, 여학생 15.0%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바커스(2005)가 전국 5개 대학의 대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91.2%가 술을 마시며 특히 남학생의 23.4%, 여학생의 20.8%가 매일 술을 마시는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고명숙 등(2002)이 남자 재소자들의 문제 음주율(AUDIT 12점 기준)이 51.1%, 천성수 등(2000)이 남자대학생들의 문제 음주율(AUDIT 12점 기준)이 55.1%로 조사한 자료들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와 행동변화차원이 아닌 사회환경(Straus, 1983)변화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Hingson & Howland, 2002).

조사대상학생들의 흡연율은 남학생 50.9%, 여학생 12.1%였고, 학생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반 갑~한 갑'이 전체의 41.5%(남 49.6%, 여 33.3%)였다. 우리나라 20~29세 성인흡연율(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6.3) 58.5%, 여성 흡연율(20~29세) 5.3%인 것과 비교할 때 조사대상 여학생들의 흡연율(12.1%)이 성인여성 흡연율(5.3%)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20대 여성의 흡연률은 90년(1%), 99년(4.8%), 2006년(5.3%), 2007년(5.7%)에 걸쳐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1980년(79.3%), 2004년(57.8%), 2006년(44.1%)로 해마다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흡연시작 시기는 남학생은 중학교 29.8%, 고등학교 27.3%인데

비해 여학생들은 중학교 때(51.5%)와 고등학교(30.3)시절에 흡연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도 15.2%로 남학생 9.1%에 비해 높았다. 남녀 모두 중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시기까지 흡연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주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시는 비음주자의 흡연률 14.5%에 비해 음주자의 흡연률은 33.8%로 높았다. 음주자 중 비흡연자는 66.2%인데 비해 흡연자 중 비음주자는 5.7%에 불과해 흡연자일수록 음주할 가능성(94.3%)이 높았다. 또한 흡연을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음주량수준의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와 흡연량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윤인숙 등(2001)과 이원재(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조사대상 전체학생의 20.4%만이 절주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음주예방교육활동을 실시한 유무를 조사한 김광기 등(2006) 조사에서는 과거 3년간(2002년 3월~2005년 2월)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40.0%, 최근 1년간(2004년 3월~2005년 2월)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41.0%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대학생들의 절주교육경험은 20%대에 불과해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절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주예방교육이 아닌 음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행사 시행유무'에 대해 과거 3년간 20.2%, 과거 1년간 14.7%의 대학만이 특별행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주교육을 받은 동기는 학교행사(49.5%)가, 효과적인 절주교육 방법은 '강사초청'(49.3%)이 가장 많았다. E-mail을 통한 절주교육은 2.5%만이 효과적이라고 답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선행 연구된 대학생들이 추천하는 효과적인 절주교육방법에 대한 천성수 등(2000)

조사에서는 ‘팜플렛 및 소책자 활용’ 26.4%, ‘교내게시판’ 22.7%, ‘학교홈페이지’ 20.5%였고 교양강좌개설 및 E-mail 활용은 10.6%로 가장 낮았다.

금연교육 경험율은 남학생 60.4%, 여학생 49.1%로 절주교육 경험율(남 25.7%, 여 15.2%)과 같이 남학생이 더 높았다. 금연교육 경험율(54.7%)이 절주교육 경험율(20.4%)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은 금연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시행과 알코올보다 일찍 금연운동이 민간단체중심으로 전개된 것, 그리고 공익광고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금연교육을 받은 동기에서 친구권유(4.5%)와 가족권유(3.3%)가 7.8%인데 비해 절주교육을 동기는 친구권유(7.7%)와 가족권유(20.9%)가 28.6%였다. 즉 담배에 대한 금연권유보다 술에 대한 절주권유가 주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술로 인해 폐해가 담배보다 즉각적이고도 폭넓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효과적인 금연교육방법에 대해 학생들은 초청강의를 가장 선호(35.2%)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디오, CD선호도는 여학생(36.2%)이 높았다. 금연교육을 받은 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 27.9%인데 비해 전체의 32.8%가 오히려 필요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사대상 남학생의 38.3%, 여학생의 37.9%가 절주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고, 절주시도시 성공률은 25.3%로 나타났다. 향후 절주의도는 전체학생의 54.0%(남학생 47.7%, 여학생 60.3%)가 절주의도가 있었고 특히 여학생의 절주의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인 임국환 등(2004)에서 조사된 절주의도 51.7%(남학생 57.4%, 여학생 44.1%)와 비교 시 다소 높은 수준이나 남녀학생간의 절주의도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절주를 시도한 이유에 52.4%가 ‘건강 상

의 이유’로 응답했고 ‘의사의 권유’라고 응답한 학생(5.9%)까지 고려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절주를 시도한 학생이 58.3%였다. 앞서 연구된 임국환 등(2004)자료에서도 절주동기에 ‘다음날 컨디션’ 42.8%, ‘건강상 이유’ 32.5%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절주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절주실패 원인은 ‘각종 행사의 참여로 인해’가 27.6%, ‘술 이외에 놀이 문화가 없다’가 22.0%였고, 특히 여학생은 ‘친구의 지속적인 권유’를 절주실패의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23.8%로 남학생 12.5%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천성수 등(2003)의 연구결과에서 금주 실패원인으로 ‘대학생활에 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6%, ‘주변에서 술을 권해서’ 27.8%,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20.4%와 비교 시 술을 줄이거나 끊지 못하는 동기의 대부분이 사회 환경 및 외부압력에 의한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각종 행사나 모임에 술이 자주 등장하고 술 이외에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은 대학사회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안문화의 빈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들이 모임이나 행사에서 친구수단으로 술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금연을 시도한 경험은 34.5%(남 54.5%, 여 14.7%)였고 금연시도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56.5%로 가장 높았다. 특히 금연 시도시 남학생들은 ‘가족 및 친지 권유’가 16.5%로 여학생의 6.1%보다 높았고 여학생들은 ‘친구권유’로 금연을 시도한 경우가 남학생(13.2%)에 비해 훨씬 높은 36.4%를 나타냈다.

금연 시도시 실패원인으로 남학생들은 정신적 스트레스(37.0%)가, 여학생들은 음주 중의 흡연 욕구(39.3%)가 가장 높았다. 향후 금연 의향에 남학생 63.1%, 여학생 71.9%가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학교행사 외 교내에서 음주시 한 달 평균 음주횟수는 전체학생의 74.8%가 '한 달에 1~2회'라고 응답했고 '3~4회'가 10.5%였다. 전체 남학생의 13.0%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인 한 달 평균 8~10회 이상 학교 행사와 무관한 교내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달에 1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도 9.6%였다. 음주에 대한 교내 허용기준에 대해 '항상 허용'이 42.4%(남 50.5%, 여 34.4%)였으나 '축제기간에 한해서만 허용'이 23.3%(남 18.0%, 여 28.6%)와 '6시 이후 야간에만 허용'에 대한 의견도 21.7%(남 19.8%, 여 23.7%)로 대학 내 음주에 대해 제한적 기준을 두는 것에 45.0%가 찬성하였다. 음주를 '항상 불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6.5%나 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은 '항상 허용'에 대한 찬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부분 허용'(축제 기간에 한해 허용' 28.6%, '야간에만 허용' 23.7%)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교내에서 음주시 음주허용장소에 대해 '야외에서만 허용'이 42.6%로 가장 높았고 '강의실외 허용'이 26.5%였다. 반면 '모든 장소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6.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내음주를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닌 학생이 42.4%였으나 '모든 장소에서 허용'은 16.8%로 낮고 오히려 음주 장소에 대한 제한적 허용에 대한 의견이 74.5%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내 금연구역 설정 범위에 대해 흡연구역 외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데 34.3%가 찬성하였고 '교내전체' 31.4%, '건물 내' 18.4%, '강의실 내' 8.1%순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교내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35.7%가 찬성해 남학생(27.0%)보다 높았고 흡연구역 외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여학생(40.6%)이 남학생(27.9%)보다 높

아 여학생이 더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절주 및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학내 음주·흡연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 내에서의 절주 및 금연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들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생들의 87.7%가 음주자이며 적정음주량을 초과한 폭음자는 36.7%, 고도폭음자는 31.7%로 전체학생의 68.4%가 문제음주 수준이며, 음주횟수도 전체 남학생의 15.8%, 여학생의 6.3%가 월 11회 이상 음주하는 등,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인식 및 환경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중학교 때가 가장 흡연을 많이 시작하는 시기(남 29.8%, 여 51.5%)이고 특히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도 15.2%로 남학생(9.1%)에 비해 높은 것을 볼 때 흡연시작연령을 늦추고 흡연인구유입도 줄이기 위해 흡연예방교육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기부터 받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조사대상학생들은 절주교육과 금연교육을 주로 학교행사(절주 49.5%, 금연 81.1%)를 통해 접한 경우가 많았고, 강사초청이나 비디오시청을 교육방법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향후 절주 및 금연 의사가 각각 54.0%, 67.5%인 만큼 교양과목 강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 측에서 절주 및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절주실

패의 주요한 원인이 각종 행사의 참여(27.6%), 술 이외에 놀이 문화가 없다(22.0%)인 만큼 술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안문화의 도입사례와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3) 교내 음주 허용에 대해 교내음주를 항상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닌 학생이 42.4%였으나 '모든 장소에서 허용'은 16.8%로 낮고 오히려 음주 장소에 대한 제한적 허용에 대한 의견이 74.5%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도 음주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담배의 경우에는 교내전체나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을 금연 구역화하는데 65.7%가 찬성하였다.

참고문헌

1. 고명숙, 천성수, 박영일, 김명석, 박종순. 범 죄유형별 음주기여율 비교연구. 한국알코올 과학회지 2002. 3(1). 159-167.
2.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자료분석. 2005.
3. 김광기, 장승옥, 제갈정. 대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음주폐해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 2006. 23(3). 65-83.
4. 대한심장학회 50주년기념사업 연구결과보고서. 2008.
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

6. 윤인숙. 대구보건대학 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니코틴 의존도. 대구보건대학논집 2001. 21. 155-171.
7. 이원재.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2001. 10. 79-95.
8.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김춘진.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실태와 관련성 분석. 대한보건연구. 2004. 30(1). 57-70.
9. 조성기. 대학생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2001.
10. 천성수. 대학사회문제음주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보고서. 2000.
11. 천성수. 대학생 폭음의 원인과 음주관련문제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2. 3(2). 221-233.
12. 천성수. 대학생의 폭음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대한보건협회제주지부 제5회 학술세미나. 2003. 53-76.
1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통계자료. 2001~2007.
14. Hingson RW, Howland J. Comprehensive community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 Implication for college-age drinking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2. 63. 136-144.
15. Straus R. Types of alcohol dependence. The Biology of Alcoholism. 1983. Vol.6. New York: Plenum.